

## 재 루미니아 동포 간담회

우리 교민 숫자에 비해 오늘 최고의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1만 명 계신데도 이만큼 오시고 10만 명 계신데도 이만큼 오시고, 250명 계신데도 이만큼 오세요. 아마 작으면 더 좀 따뜻하게, 따뜻한 체온이 전달이 잘 되나 보지요? 여러분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교민사회가 생긴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데, 다른 곳만큼 큰 성공을 거둔 분은 아직 없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은 분들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우리하고 별로 인연이 없던 땅에 와서 사업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고, 루마니아 하면 한국에 널리 알려진 곳이 아닌데 상사원 150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루마니아가 그렇게 장사할 일이 많은 곳인가 하는 생각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게다가 선교하러 오신 분들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다고 하네요? 이것도 놀랍습니다.

### 루마니아 사회에서 존경받는 민족 집단이 되기를

모두 특별한 뜻을 가지고 오신 분들인 만큼 모두가 성공하여, 성공의 기록을 남기는 루마니아 사회에서 존경받는 민족 집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따로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회를 이루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역 사회에 함께 뿌리 내리고 이 나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한국인 하면 존경받는 풍토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제가 덕을 많이 봅니다. 한국의 경제인들이 해외 활동을 활발히 하는 덕분이죠. 우리 상품을 통해 우리나라가 알려지고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면, 우리 상품이 대우 받는 만큼 대통령도 그만큼 대우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민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여러 나라를 방문하다 보면 교민들이 열심히 살고 지역 사회 질서와 규범 잘 지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된다는 칭찬을 자주 듣습니다. 그 칭찬 들을 때 아주 으쓱하지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도 국가를 위한 큰 자산이지만, 해외에서 한국인의 이름을 걸고 일하는 분들도 우리의 중요한 국가자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루마니아에서도 그런 전통 만들고 큰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 도움 되는 것 이전에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바세스쿠 대통령이 지난 번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비자, 체류 자격을 한번 획득하면 효력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매년 갱신해야 하고, 한번 얻는데 4달 걸려서 1년에 4달씩 애를 먹는다고 한다.’, ‘운전면허 때문에도 불편해 한다’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바세스쿠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더니 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웃음) 확인해 보니까 운전면허 쪽의 일부분만 해결되고 완전히 해결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체류 자격 문제는 EU 가입하면 절차를 다 바꾸게 될 테니 그때 한꺼번에 하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은 안 된 줄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일 만나면 꼭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그 때 바세스쿠 대통령은 대우 자동차 문제가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건 기업적 거래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자산관리공사가 공사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고 또 진출할 사람들의 깃발을 봐서 되도록이면 루마니아 정부와 좋은 관계 유지하도록 잘 하자고 (자산관리공사에) 부탁했습니다. 그 문제는 잘 해결됐습니다. 제가 주문받은 것은 해결 됐는데 주문한 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됐네요.

### 한글학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할 것

한글학교, 애로 사항 많으시죠? 그 문제는 저도 구체적 내용은 잘 모릅니다. 최 대사도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만나 얘기해 보니까, 오래 있었던 사람처럼 환하게 께고 있긴 하더군요. 직접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건 아니고, 책에 써놓은 것이라든지 전임자에게 인수인계 받으며 파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교민들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풀어드리라고 당부하겠습니다.

한글학교, 참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애국심 때문에 모국어는 잊지 말아야지 하고 의무감으로 한글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는 것에 바쁘다 보면 가르치는 것을 잊기 쉽죠. 안 가르치고 한국에 오면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본인도 미안하고, 보는 사람도 은근히 홍보고 그랬는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한국말 잘 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계 속에서 사는데 경쟁력 높아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쟁력 훨씬 높아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건이 좀 안 좋더라도, 아이들 간에 같이 공부하고 한글도 열심히 익힐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정부지원이 마냥 자유롭지는 않

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외 교민들의 한글 교육에 어려움 없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리스에서도 교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문제, 다시 정책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 국민의 요구수준 높다는 것은 많은 것을 성취할 가능성 가진 국민이라는 의미

요즘 대통령이 인기가 좀 없습니다. 국민들의 희망수준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제 인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아주 높다는 것은 많은 것을 성취할 가능성을 가진 국민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을 바쁜 국민이라고 하는데, 바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도가 아주 빠른 것 같은데도 국민들은 계속 불만입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데 더 뛰라고 채찍질을 하시죠. 열심히 뛰겠습니다. 루마니아 방문을 마치면 헬싱키 가서 아셈회의를 하게 되는데, 유럽에서 한국인의 위상이 더 높아지도록 외교를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미국엘 가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미 간 여러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한·미 관계 무슨 문제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제가 부시 대통령을 만나고 나면 한동안 조용해집니다. 약효가 그리 길게 가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한·미 관계 탈 없이 조정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